

중국 신용카드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KIEP 북경사무소 (hjpark@kiep.go.kr, Tel: 86-10-8497-2870)

차 례 ●●●

1. 개요
2. 중국 신용카드 시장 현황
3. 신용카드 시장의 문제점

주요 내용 ●●●

■ 중국 신용카드 시장은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외국계 은행이 중국 신용카드 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중국 국내은행들이 신용카드 산업에 투자를 확대하면서 본격적으로 발전해왔음.

- 현재 중국 신용카드 시장은 국내은행이 주도하고 있으며, 외국계 은행의 독자적인 신용카드 발급은 엄격히 통제되고 있음.
- 최근 들어 외국계 은행인 홍콩 동아은행(2008년)과 시티은행(2012년)이 독자적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되었으나, 아직 중국시장 점유율이 매우 낮은 수준임.

■ 최근 중국 대형은행의 공세적인 카드발급 확대에 힘입어 특히 신용카드 시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

- 2012년 3/4분기 말을 기준으로 은행카드 누적 발급 수가 34억 장으로 전년동기대비 21.2% 증가함.
- 이 중 신용카드 누적 발급 수는 동기대비 18.8% 증가한 3억 1,800만 장이며, 2011년 신용카드 소비액은 4조 1천억 위안으로 전사회 소비품 소매액의 22.6%를 차지하였음.
- 은행별 신용카드 시장 점유율은 공상은행이 가장 높았고, 연평균 신용카드 소비액은 건설은행이 가장 높았으며, 초상은행 신용카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가장 높았음.

■ 한편 신용카드 시장의 발전과 더불어 드러나는 문제점도 적지 않음.

- 신용카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각 은행들이 신용카드 발급 기준을 지나치게 낮추어 신용카드 연체대금 총액이 증가하고 있음.
- 2011년 신용카드 관련 분쟁은 5,558건으로 2009년의 523건 대비 약 10배 증가하였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 제도적 장치가 아직 미비함.
- 또한 무차별적인 신용카드 발급으로 전체 신용카드의 약 80%가 휴면상태임.

1. 개요

■ 1985년 중국은행(中国銀行) 주하이(珠海) 지점의 첫 번째 신용카드 발급을 시작으로 27년 동안 중국의 신용카드 시장은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음.

- 특히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외국계 은행이 중국 신용카드 시장에 관심을 보이자 중국 내 은행들이 신용카드 산업에 투자를 확대하면서 신용카드 시장이 본격적으로 발전함.

■ 현재 외국계 은행의 신용카드 발급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어 중국 신용카드 시장은 중국 국내은행이 주도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외국계 은행이 중국 신용카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은 중국 국내은행과 합작하여 공동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것임.

○ 홍콩 동아은행(东亚银行)은 중국은행, 시티은행은 상하이푸둥발전은행(上海浦东发展银行), 홍콩 상하이은행(HSBC)은 교통(交通)은행과 합작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해왔음.

- 현재 외국계 은행 중 독자적으로 카드를 발급하는 곳은 홍콩 동아은행(2008년)과 시티은행(2012년)이지만, 독자적으로 발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장 점유율은 매우 낮음.

■ 다음에서는 「왕이재경(网易财经)」의 발표를 바탕으로 중국 내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중국 신용카드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함.

2. 중국 신용카드 시장 현황

■ 「왕이재경」에 따르면,¹⁾ 2012년 3/4분기 말 현재 중국 은행카드 시장 규모는 34억 장(누적 발급 수)으로, 중국인 1인당 약 세 장의 은행카드를 보유하고 있음.

- 2012년 3/4분기 말 기준, 중국 은행카드 시장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21.2% 성장함.

- 이 중 현금 자동지급기를 통한 현금 입출금이나 계좌이체를 주기능으로 하는 직불카드 발급 수가 30억 8,200만장으로 전년동기대비 21.4% 증가하였으며, 신용카드 발급 수는 3억 1,800만 장으로 전년동기대비 18.8% 증가함.

1) 15개 대형은행의 연감과 발표된 수치를 바탕으로 「왕이재경(网易财经)」이 정리, 보도함.

- 은행카드는 가장 중요한 비현금 결제수단으로, 비현금 결제업무²⁾ 106억 4,800만 건의 약 94.5%(100억 7,800만 건)를 차지함(전년동기대비 25.0% 증가).
- 은행카드를 통한 현금 입출금, 계좌이체 등의 거래금액은 88조 20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5.2% 증가함.
- 2012년 3/4분기 1인당 은행카드 소비액은 4,151.97위안, 은행카드 1장당 소비액은 1,804.84위안이며, 은행카드 침투율³⁾은 46.3%로 전년동기대비 6.1%포인트 증가함.

■ 은행카드 시장 중에서도 특히 신용카드 시장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중국인의 저축문화가 소비문화로 전환되고 있음.

- 2012년 3/4분기 말 기준 신용카드 누적 발급 수는 3억 1,800만 장으로, 각 대형은행의 공세적인 카드 발급 확대에 힘입어 신용카드 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
- 한편 2011년 신용카드 소비액은 4조 1천억 위안으로 전사회 소비품 소매액의 22.6%를 차지함.

표 1. 연도별 신용카드 누적 발급 수와 이용실적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신용카드 누적 발급 수(억 장)	1.4	1.9	2.3	2.8
신용카드 소비액(조 위안)	1.2	1.9	2.7	4.1
전사회 소비품 소매액 중 신용카드 소비 비중(%)	11.1	15.2	17.5	22.6

자료: 『2011年中国信用卡报告』(2012. 5), 『网易财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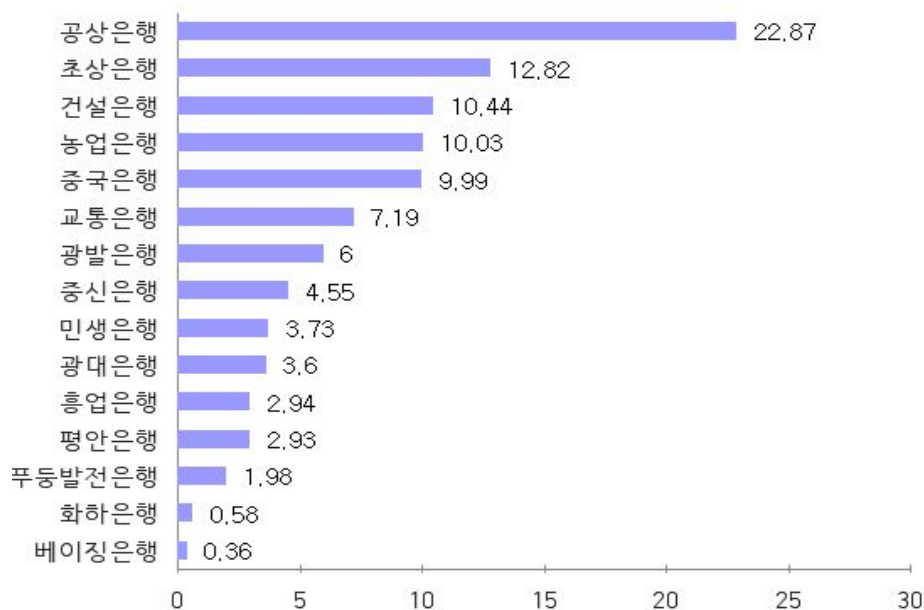
■ 2011년 말 기준 은행별 신용카드 시장 점유율은 공상(工商)은행, 초상(招商)은행, 건설(建设)은행이 상위권을 차지함(그림 1 참고).

- 중국 최대 상업은행인 공상은행의 2011년 말 기준 신용카드 누적 발급 수는 7,065만 장으로 가장 많은 카드를 발급하여 15개 은행의 카드 발급 누적 수를 합산한 총 누적 수의 22.87%를 차지함.
- 신용카드 산업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초상은행은 12.82%로 2위를 차지하였으며, 상위 6개 은행 중 유일한 주식제 은행⁴⁾임.

- 2) 비현금 결제 수단으로 어음, 은행카드, 외환과 위탁대금 수납 등 기타 업무가 있음.
- 3) 은행카드 침투율은 은행카드(직불카드와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부동산, 대량 도매 등을 제외한 사회 소비품 소매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함.
- 4) 중국의 상업은행은 국유 대형 주식형 상업은행, 전국적 주식형 상업은행, 도시 상업은행, 농촌 상업은행으로 분류됨. 국유 대형 주식형 상업은행은 국가가 제1주주인 상업은행으로 공상은행, 농업(农业)은행, 중국(中国)은행, 건설은행, 교통은행이 이에 해당됨. 전국적 주식형 상업은행은 인민(人民)은행의 비준을 거쳐 전국에서 상업금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주식제 은행으로 초상은행, 중신(中信)은행, 화하(华夏)은행, 광대(光大)은행, 상하이푸둥발전은행, 민생(民生)은행, 흥업(兴业)은행, 광발(广发)은행, 평안(平安)은행, 절상(浙商)은행, 보어하이(渤海)은행, 항풍(恒丰)은행이 있음.

그림1. 은행별 신용카드 시장 점유율*

(단위: %)



주: * △ 工商(工商)은행 - 1984년 1월 설립, 자산 규모가 가장 큰 상업은행으로 2010년 말 기준 총 자산 규모 13조 4,586억 2,200만 위안임. △ 招商(招商)은행 - 1987년 4월 설립, 기업법인이 주식을 보유한 주식제 상업은행. △ 建设(建设)은행 - 1954년 10월 중국인민건설은행으로 설립, 1996년 건설은행으로 명칭이 변경됨. △ 农业(农业)은행 - 1951년 설립, 2011년 기준 총 자산 규모 11조 6,800억 위안으로 전국 은행금융업 총 자산의 11.3%를 차지함. △ 交通(交通)은행 - 광쑤(光绪) 황제 34년인 1908년 설립되어 가장 오랜 역사를 보유, 1987년 금융개혁을 통해 중국 최초 전국적 주식형 상업은행이 됨. △ 广发(广发)은행 - 1988년 9월 국무원과 중국인민은행의 비준을 거쳐 광둥발전은행으로 설립, 2011년 광발은행으로 변경, 2011년 말 기준 총 자산규모 9,189억 8,200만 위안임. △ 中信(中信)은행 - 1987년 중국실업은행(中国实业银行)으로 설립, 2005년 중신은행으로 명칭이 변경됨. △ 民生(民生)은행 - 1996년 1월 설립된 전국적 주식형 상업은행이지만 회사법과 상업은행법에 의거하여 민간기업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최초 민영은행으로 국유은행과 기타 상업은행과 다름. △ 光大(光大)은행 - 1992년 8월 설립, 1997년 국내 최초로 국제금융조직이 지분을 참여한 전국적 주식형 상업은행임. △ 兴业(兴业)은행 - 국무원과 중국인민은행의 비준을 거쳐 1988년 설립됨. △ 平安(平安)은행 - 중국 평안보험회사 산하 은행으로 2003년 설립, 2012년 1월 선전(深圳)발전은행을 흡수 합병, 2012년 7월 말 기준 자산규모가 1조 3,400억 위안임. △ 浦东(浦东)발전은행 - 1992년 설립, 2010년 말 기준 총 자산 규모가 21억 6,200만 위안임. △ 华夏(华夏)은행 - 1992년 10월 설립, 2012년 9월말 기준 총 자산 규모 1조 4,500억 위안임. △ 北京(北京)은행 - 인민은행과 베이징시 정부의 비준을 거쳐 1996년 설립됨.

자료: 『2011年中国信用卡报告』(2012. 5), 『网易财经』.

■ 2011년 연간 신용카드 발급 증가율은 베이징은행이 가장 높았으며, 5대 국유상업은행 중에서는 중국은행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음(그림 2 참고).

- 베이징은행의 카드 발급 증가율은 80%를 넘어 1위를 차지했으며, 工商银行의 증가율은 10.98%로 가장 낮았음.
- 중국 5대 국유상업은행 중 하나인 중국은행은 5대 은행 중 카드 누적 발급수가 가장 적었지만 2011년 카드발급 증가율은 42%로 가장 높았음.
- 한편 선전발전은행을 합병한 평안은행은 카드 발급 수가 38.5%로 증가하면서 招商银行, 建设银行, 农业银行과의 격차를 좁혔음.

- 2011년 신용카드 연평균 카드 소비액은 건설은행이 1만 8,260.5위안으로 가장 높았으며, 푸둥발전은행은 8,756.14위안으로 가장 낮았음(그림 3 참고).

그림 2. 2011년 은행별 신용카드발급 증가율 (단위: %)



그림 3. 2011년 은행별 연평균 카드 소비액 (단위: 위안)



자료: 『2011年中国信用卡报告』 (2012. 5), 『网易财经』.

- 「왕이재경」의 설문조사⁵⁾에 따르면 초상은행의 신용카드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공상은행의 수수료가 가장 높음.
- 설문 응답자 중 20%가 초상은행의 신용카드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응답하였고, 신용카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공상은행은 12%로 3위를 차지함(그림 4 참고).
- 은행별 공개정보에 따르면, 공상은행의 신용카드 수수료가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설문조사 결과 초상은행의 수수료가 가장 높다는 응답이 많았음(그림 5 참고).

5) 2012년 4월 27일부터 5월 2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만여 명이 참여함.

그림 4. 가장 자주 사용하는 은행신용카드
(단위: %)



그림 5. 수수료가 가장 높은 은행신용카드사
(단위: %)



자료: 『2011年中国信用卡报告』(2012. 5), 『网易财经』.

- 설문 결과 신용카드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은행은 초상은행이며, 가장 낮은 은행은 중국 5대 국유상업은행인 공상은행, 건설은행, 중국은행, 농업은행, 交通은행으로 소비자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음(그림 6, 그림 7 참고).

그림6. 만족도가 가장 높은 신용카드사(%)



그림7. 만족도가 가장 낮은 신용카드사(%)



자료: 『2011年中国信用卡报告』(2012. 5), 『网易财经』.

3. 신용카드 시장의 문제점

■ 신용카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각 은행이 신용카드 발급 기준을 지나치게 낮추어 신용카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음.

- 인민은행의 통계수치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 중국 신용카드 신용공여 총액은 2조 6천억 위안, 신용카드 한 장당 신용공여한도액은 9,123위안으로 중국 주민의 월 소득수준을 현저히 초과한 수준임.
- 2012년 3/4분기 말 기준 신용카드 신용공여 총액은 3조 3,300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36.3% 증가함.
 - 한 은행업 관계자에 따르면, 월 임금이 5,000위안인 소비자의 은행별 신용공여액을 합산하면 10조 위안에 달함.
- 2012년 3/4분기 말 기준 신용카드 연체대금 총액은 1조 35억 4,700만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44.8% 증가함.
- 2012년 3/4분기 말 기준 신용카드 대금 6개월 이상 연체액은 144억 4천만 위안으로 신용카드 대금 총 연체액의 1.4%를 차지함.
- 흥업, 광대, 초상, 중신, 광발 5대 주식형 은행만이 신용카드 대금 연체율을 발표했는데, 5개 은행 평균 연체율은 1.28%이며, 이 중 광발은행이 1.63%로 가장 높았음.

■ 신용카드 사용이 늘면서 이와 관련한 소송도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는 아직 미비함.

- 베이징 서성인민법원(西城人民法院)이 2012년 6월에 발간한 『개인 소비 대금 심의 백서』⁶⁾에 따르면, 개인 신용카드 결제로 인한 분쟁 안건 증가율이 연평균 100% 이상으로 대부분의 소송이 금융소비와 금융기관 서비스 분쟁에 집중되어 있음.
- 신용카드 분쟁 안건은 2005년 78건에서 2009년 523건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이 142%에 달했으며, 2010년부터 신용카드 분쟁 소송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2011년에는 5,558건에 달해 2009년의 약 10배 수준을 기록함.
- 그러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아직 미비한 상태임.

■ 한편 은행들의 무차별적인 신용카드 발급은 휴면 신용카드를 양산하고 있음.

- 각 은행이 경제적 수익이 없는 대학생에게 대량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신용카드 업무 종사자의 실적만을 위해 카드가 발급되는 등 전체 신용카드의 약 80%가 휴면상태임. KIEP

참고자료

- 『2012年第三季度支付体系运行总体情况』. 2012年11月. 「中国人民银行」.
- 『信用卡消费投诉成倍增长』. 2012年12月10日. 「中国质量万里行」.
- 『2011年我国新发信用卡5500万张信用卡风险管理存在4大问题』. 2012年5月8日. 「新华网」.
- 『外资银行信用卡：东亚走高端花期靠品牌』. 2012年9月25日. 「证券日报」.
- 『外资行信用卡中国“变脸”：不拼卡量拼精准』. 2012年9月24日. 「中国经营报」.
- 『2011年中国信用卡报告』. 2012年5月. 「网易财经」.
- 『人均金3张银行卡发行量达34亿』. 2012年11月27日. 「第一财经日报」.

자료 정리: 인민대학 재정금융학원 박사과정 신금미 (nhsinny@hotmail.com)

6) 个人消费贷款审判白皮书